

寶物로指定된

堯明科學文化財들

仰釜日晷

寶物 : 第845號

所在 : 창덕궁

製作年代 : 18世紀 前半

材料 : 청동, 흑칠, 은상감

크기 : 직경 24.3cm

銘 : 漢陽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十五秒

仰釜日晷

冬至~夏至(24절후)

寅·卯·申·酉·戌

仰釜日晷는 世宗 때에 만들어진 해시계들중의 하나이다. 『世宗實錄』에 의하면 世宗 19年(1437) 4월에 일련의 天文儀器가 완성되었는데, 그중에 仰釜日晷 懸珠日晷·天平日晷·定南日晷 그리고 圭表가 있었다.

仰釜日晷는 『元史』天文志 仰

儀條에 보이는 郭守敬法에 의하여 製作되었다고 文獻들이 전한다. 그 記錄들에 의하면, 이것은 半球形의 대접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仰釜日晷란 이름이 붙었다. 그것은 靑銅으로 만든 독특한 구조의 해시계로서 中國에서 元代에 만든 것과는 꼭 같지 않다. 時盤은 冬至에서 夏至에 이르는 24節期를 13線의 緯線으로 나타내고 이에 수직으로 時刻線(자오선)을 그었고, 影針은 北極을 향하여 비스듬히 꽂았다. 특히 글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서 時神을 그려넣어 時間을 알게 했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 해시계는 2個를 만들어 惠政橋와 宗廟 남쪽 거리에 石臺를 쌓아 그위에 設置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해시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 時計였다는 데서도 의의가 크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종묘 남쪽 거리에 있던 仰釜日晷 석대는 그 근처 땅속에 묻혀 있다가 종묘 전차선로 부설공사때 發見되어 파고다 공원으로 옮겨 놓았다

(京城府史 卷1)한다.

이때 만든 仰釜日晷가 지금 남아있는 仰釜日晷들과 똑같은 형태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朝鮮中期 이후의 모든 仰釜日晷들이 같은 형식이라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世宗 때의 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와 형식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이 仰釜日晷들은 世宗 때의 전통을 이어받은 朝鮮式 해시계를 대표하는 作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창덕궁에 소장된 2個의 仰釜日晷는 반구형의 대접 모양에 네발이 있는 우아한 모습을 가진 것으로 作風과 製作技法이 꼭 같다. 靑銅으로 부어만들고 글자와 線은 은상감으로 처리하여 까만칠과 잘 어울리고 다리에는 정확한 수평을 잡기 위한 水準裝置를 十字형태로 해 놓고 있다.

창덕궁에 소장된 2個의 仰釜日晷들은 그 아름다움으로도 최상급의 해시계이며 화강석대의 우아한 조각과 잘 어울리게

- …… 우리의 傳統 發明科學文化財는 韓民族의 發明科學의 創造性을 나타내는 값진 遺……○
- ……產이다. 그러나 이들 發明科學 文化財는 그동안 認識 不足으로 빛을 발하지 못해……○
- ……왔다. ……………○
- …… 此際에 文公部가 世界 唯一의 渾天時計등 3點을 國寶로, 水標 등 15點을 寶物로……○
- ……指定한 것은 우리 祖上의 슬기로운 創造精神을 이어받고 全國民에게 發明科學하는……○
- ……民族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심어주려는 措置로 評價되고 있다. ……………○
- …… 特히 國寶 및 寶物로 指定된 遺物들은 傳統發明科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天文……○
- ……氣象分野의 遺物과 地圖(之圖)중에서도 뛰어난 것들이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우리……○
- ……의 文化를 말할 때 世界的으로 자랑할만한 것들이라고 해은 創造的 遺產들이었다. ……○
- ……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값진 國寶 및 寶物들의 內容은 커녕 어떤 모……○
- ……양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에 本誌는 特別企劃探查를 마련, 이들 國寶 및 寶物을……○
- ……探查하여 連載하기로 했다. ……………○ <編輯者 註>……○

했다.

製作年代 고증을 살펴보면 시각선이 12時 96刻의 時制에 따르고 있으므로 1636年 시헌력으로 개력한 이후의 것이고, 큰 仰釜日晷는 「漢陽北極高三十七度二十分」으로 새겨 있으므로, 한양의 北極高度를 37度 39分 15秒로 測定 확정한 1713年 이전의 것이다.

그러니까, 큰 것은 17世紀 後半, 작은 것은 「漢陽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十五秒」로 새겨 있으므로 18世紀 前半에 각각 製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실록』에는 仰釜日晷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仰釜日晷는 『元史』에 기재된 郭守敬의 법에 따라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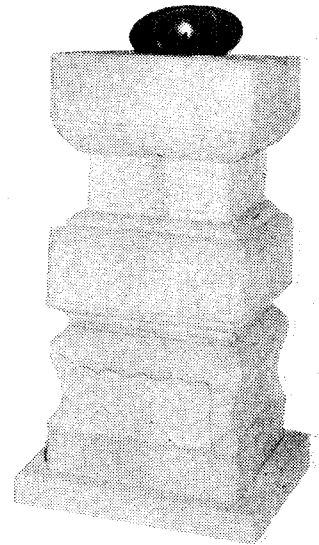
金墩의 仰釜日晷銘에는 이르기를, “무릇 시설하는 것으로서 時間에 관한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다. 밤에는 更漏가 있으나 낮에는 알기 어렵다. 靑銅을 부어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모양이 슬과 같다.

지름에 둥근 송곳을 設置하여 北에서 南으로 마주 대하게 했으며 움푹 패인 곳에서 휘어서 돌게 했고, 점을 깨알같이 찍었는데 그속에 度를 새겨서 半周天을 그렸다. 時神을 그린 것은 무식한 백성을 위한 것으로 時刻이 정확하고, 해그림자가 명백하다. 길가에 놓아두니 구경꾼이 모여든다. 이로부터 백성도 이것을 만들줄 알게 되었다.”하였다.

이 仰釜日晷들은 몇개의 비슷한 다른 청동제 仰釜日晷와는 달리 그 빼어난 제작솜씨가 특히 드러나는 作品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왕궁에 설치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 중의 작은 쪽은 창경궁에 있는 해시계대에 꼭 들어맞아 그런 가능성을 더 질게 해준다.

이 仰釜日晷들은 朝鮮時代의 대표적인 해시계로서, 科學文化財로서의 가치가 큰 귀중한 遺物이다.

지금까지 調査된 바로는 이



에 버금가는 靑銅製 仰釜日晷가 3個가 더 있다. 그런데 그 製作솜씨는 이것들 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㉞>

<參考文獻>

- 世宗實錄
- 國朝曆象考
- 增補文獻備考
- 書雲觀志
- 全相運, 李氏朝鮮의 時計製作小考
- 李殷晟, 해시계의 歷史와 그 原理